



지속가능경영책임자(CSO)의 수와 역할 확대

이승주 연구원

요약

글로벌 기업 내 지속가능경영책임자(CSO)의 수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은 ESG 경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변화와 관련 규제 압력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CSO는 ESG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관련 규제 압력 및 CSO의 전문성에 따라 영향력은 상이할 수 있음. 글로벌 보험산업도 CSO 선임을 통해 ESG 경영 및 리스크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글로벌 기업 내 지속가능경영책임자(Chief Sustainability Officer, 이하, 'CSO')의 수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¹⁾

- 1,640개 글로벌 기업 조사 결과, 최근 2년('20~'21) 동안 CSO를 선임한 기업 수(394개)가 이전 9년('11~'19) 동안 CSO를 선임한 기업의 수(414개)와 유사함
- ESG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기업일수록 CSO 보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CSO 선임과 ESG 평가 결과는 양(+)의 관계를 보여줌
 - ESG 평가 A등급 기업의 98%, B등급 87%, C등급 60% D등급 48%가 CS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최근 CSO는 규정 준수를 위한 후선 지원뿐만 아니라 프론트 오피스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고임원(C-Suite)에게 ESG 안건을 전달함으로써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ESG 경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변화와 관련 규제 압력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글로벌 투자자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필요성과 의구심을 동시에 인식하면서도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비즈니스 활동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임²⁾
 - 70% 이상의 투자자는 기업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해 공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87%는 지속가능성 공시에 약간의 그린워싱 요소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함
 - 한편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업의 낮은 투자 수익률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40%가 비수용, 29%가 수용할 것이라고 나타나 지속가능경영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임
- 이와 더불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리스크 공시법 및 EU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이 2023년 및 2024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³⁾는 IFRS S1, S2를 제정 중임

1) PwC(2021), "Empowered Chief Sustainability Officers"

2) PwC(2022), "PwC's Global Investor Survey 2022: The ESG execution gap"

3)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글로벌 ESG 공시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설립됨

〈표 1〉 미국, 유럽,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제도 비교

제도 명칭	도입 주체	의무공시	적용 대상 기업	적용 항목	공시 초점 ²⁾
기후리스크 공시법	SEC	FY23	SEC 기준 적용 대상 미국 상장 기업	기후 관련	투자자의 관점에 맞춘 단일 중요성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	EU	FY24	직원 250명 이상 순매출 4천만 € 자산 2천만 € ¹⁾	ESG 전반	이해관계자 관점에 맞춘 이중 중요성
IFRS S1, S2	ISSB	N/A	각 국가별 또는 지역별 자율 적용	기후 관련 (ESG 전반 확장 예정)	투자자의 관점에 맞춘 단일 중요성

주: 1) CSRD 적용 대상 기업은 위 기재된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며 2026년까지 적용 대상 기업이 확대될 예정임

2) 단일 중요성(Single materiality)은 외부 영향이 기업 재무 상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공시를 의미하고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은 ESG 요소가 기업에 미치는 기회 및 리스크와 더불어 기업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시를 의미함

○ CSO는 ESG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관련 규제 압력 및 CSO의 전문성에 따라 CSO 선임의 효과는 상이할 수 있음

- Fu et al.(2020)는 CSO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기여보다 기업의 무책임한 행위를 줄이는데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함⁴⁾
- Kanashiro and Rivera(2019)는 CSO는 규제 압력이 높을 경우 환경(E) 관련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반대로 낮은 규제 압력하에서는 해당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줌⁵⁾
- Thun and Zülch(2022)는 경영이사회 내 CSO는 CEO, CFO보다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양과 질(공시 수준 및 외부 검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음⁶⁾
- Velte and Stawinoga(2020)는 CSO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CSO 선임은 그린워싱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을 밝힘⁷⁾

○ 글로벌 보험산업도 CSO 선임을 통해 ESG 경영 및 리스크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글로벌 보험산업의 경우 활발히 활동하는 CSO의 비중은 33%, 제한적인 권한으로 활동하는 CSO의 비중은 58%로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 기업 중 8%는 기업 내 CSO를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보험회사 Allianz, AIG, Hartford, Liberty Mutual 등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ESG 전략 수립 및 실행과 더불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CSO를 선임하였음

4) Fu et al.(2020), "Chief sustainability officers and corporate social (Ir)responsibility"

5) Kanashiro and Rivera(2019), "Do Chief Sustainability Officers Make Companies Greener? The Moderating Role of Regulatory Pressures"

6) Thun and Zülch(2022), "The effect of chief sustainability officers on sustainability reporting—A management perspective"

7) Velte and Stawinoga(2020), "Do chief sustainability officers and CSR committees influence CSR-related outcomes? A structured literature review based on empirical-quantitative research findings"